

결림돌 I.

'선입견'을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 신앙의 위험성

1. 결림돌을 제거하라.

[이사야 62:10]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못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길을 예비해야 한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말쑥에 나온대로 '돌'들을 없애는 것이다. 돌은 길 위에 사고의 원인이 된다. 작은 돌, 큰 돌 모두가 제거되어야 한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영적인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고)를 말한다. 생각의 영역(사고) 안에 깊이 박혀있는 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사고) 안에 어떤 길이 만들어져 있는가 점검하라. 생각과 사고는 믿음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점검해야 한다.

2. 선입견

(1) 세계관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저마다 생각의 '틀'이 있다. 그 '틀'을 다른 말로 세계관, 관점이라 표현할 수 있다. 성도의 생각의 '틀'이 있다. 사고의 구조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 깊이 이야기 하면 사고방식이 바로 '신앙'의 실재가 된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백부장의 '사고와 생각'을 칭찬한 것이다.

(2) 선입견

* 정의 :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믿음의 사고를 가로막는 가장 강한 결림돌이 바로 '선입견'이다. 선입견은 사전적 정의에 언급된 것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으로 굳어진 견해'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종교적 신앙

신앙이 종교화 되었을 때의 특징은 분명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성전이 현실의 고통소리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 응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적이다. 실재적이다. 언제나 땅의 소리에 민감했다.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요청한다.

ㄴ) 굳어진 틀 (움직이지 않는 신앙)

현실감이 없는 신앙의 특징은 움직임이 없다. 머리로 이미 다 판단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하기도 전에 결과를 단정한다. 이런 습성이 신앙생활, 사람과의 관계, 일터에서 나타난다. 일을 하기전에 만가지 이유가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선입견을 진리라 너무나 확고히 믿고 있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 추상적 진리가 아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경험되지 않는 진리는 내 것이 아니다 (체화되지 않은 말씀 - 말씀의 성육신). 사고 안에 굳은 선입견은 결국 진짜 믿음이 아니다. 선입견은 언제나 경험 앞에 무너진다. 어떤 일에 대한 선입견이 깨어지는 순간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현장과 일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다.

3. 움직이는 신앙이 진짜 기적을 본다.

[열왕기하 5:10-14]

10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1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12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 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로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13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 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1) 나아만의 선입견

엘리사의 권면을 사환을 시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이었다. 사환을 시켜 자기에게 권면한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사실'을 말한다. 현실적 분석이다. 시리아에 있는 강이 요단강 보다 훨씬 좋다. 좋은 강이 자신의 병을 낫게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다. 바로 이 단정의 상태가 선입견이다.

(2) 부하들의 진짜 충언

그런데 13절에 부하들의 충언이 진짜이다. "진짜 당신이 치유된다면 이보다 더 못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현실을 직시해라. 중요한 것은 강이 아니다. 네 병이 중요하다. 치유받는 일이 중요하다. 네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선입견에 갇혀있지 마라. 네가 분석하고 단정짓는 일이 중요한가? 성경의 말씀이 네게 진짜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도전해주며 충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3) 경험과 치유

나아만의 위대함은 순종에 있다.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결국 나아만에게 치유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픈 당사자가 나아만이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었던 어린 하인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마라.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여 보라. 그러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움직이는 신앙위에 서라.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인다. 머리 신앙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실재가 되게 하라.